



일한우호교류공원, 바람의 언덕'에서는 아름다운 '교류의 바다'를 조망하며 당시를 돌이켜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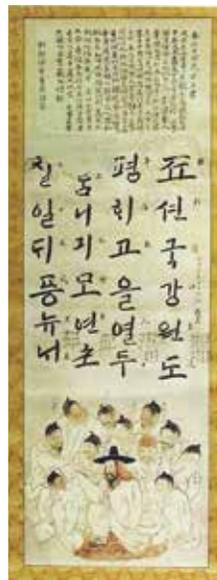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기원하며 - 우호 교류의 바다를 건너, 우리 마음이 전해지기를

사계절, 매력이 넘치는 돗토리현

돗토리현(鳥取県)은 교토(京都), 오사카(大阪)에서 북서쪽으로 약 150km떨어진, 인구 약 60만 명의 현이다. 현 내에는 일본 최대급의 '돗토리 사구(鳥取砂丘)'와 모래 조각을 전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미술관인 '돗토리 사구·모래 미술관', 그리고 겨울 스포츠를 비롯해 등산, 캠핑, 자전거, 골프 등 일 년 내내 다양한 레저를 즐길 수 있는 다이센(大山) 산 및 미사사 온천(三朝温泉), 가이케 온천(皆生温泉) 등의 온천지가 있어 계절에 따른 음식과 문화, 관광을 즐길 수 있는 매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또 '명탐정 코난'의 작가인 아오야마 고쇼(青山剛昌) 선생, '계게계의 기타로'의 작가인 고(故) 미즈키 시게루(水木しげる) 선생 등 저명한 만화가의 고향으로 알려지면서, 이들 작품을 테마로 형성된 상점가와 작가의 성장 과정 및 작품이 탄생하기까지의 비화, 제작 풍경 등을 엿볼 수 있는 전시관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다.

한국과의 깊은 인연을 오늘날에 전하는 마음 따뜻해지는 에피소드



일본이 쇄국 정책을 펴던 1819년, 강원도 울진군(현재의 경상북도 울진군)의 상선이 폭풍으로 돗토리현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하자, 당시 돗토리번(鳥取藩)은 나가사키(長崎)까지 무사히 데려다 주었다. 이 사실은 1991년 돗토리현립 도서관에서 발견된 족자 '표류 조선인 그림(漂流朝鮮人之圖)'에 그려진 감사 편지로 인해 알려졌다. 당시 돗토리현은 이를 '일한 교류의 뿌리'로 규정하고, 상선의

1991년 돗토리현립도서관에서 발견된 족자 '표류 조선인 그림'

선장이었던 안의기 씨의 후손을 찾아 나섰다. 결과적으로 안 씨 가문의 후손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돛토리현이 다시 한 번 일한 교류의 초석을 확인하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18년, 다시 한 번 한국의 화물선이 돛토리현 앞바다에서 조난을 당했다. 이때, 제주도 출신 선원 1명이 숨을 거두자 주민들이 공양탑을 세웠는데, 지금까지도 지켜지고 있다. 올 2월에는 100주기 행사가 거행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는 거제도 어선이 기관 고장으로 떠내려왔다. 선원은 전원 구조되어, 선박 수리가 끝날 때까지 약 1개월간 지역 주민의 따뜻한 보살핌을 받았으며, 그 후 무사히 부산항으로 귀환했다고 한다.

이들 사례는 일한 양국 간의 외교적 줄다리기가 이해 관계를 초월해, 마음이 통하는 지역 간 교류의 근간으로서, 현대 돛토리현의 국제교류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전해진 고토우라정(琴浦町)에는 '일한우호 교류공원·바람의 언덕'이 구축되어 '우호 교류의 바다'를 조망하며 당시를 돌이켜 볼 수 있다.

‘일한 지역 간 교류의 모델 케이스’로 불리는 강원도와의 교류
돛토리현은 1993년 강원도와 농업 분야에서 교류를 시작해, 이듬해인 1994년 ‘우호제후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하고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했다.

청소년, 문화 예술, 스포츠, 복지, 환경, 경제, 관광 등 폭넓은 분야에 걸친 교류 사업은 연간 30건이 넘으며, 지금은 양적·질적으로 ‘지역 간 교류의 모델 케이스’로 평가받고 있다.

교류 초부터 실시하고 있는 직원 상호 파견은 각각 20명을 넘겼으며, 상대 지역에서 언어, 행정 및 재정 제도를 습득하고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완수한 직원이, 귀임 후에는 다방면에서 ‘일한 교류의 가교’로 활약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뿐만 아니라, 두 자치 단체 및 민간 단체간의 교류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돛토리현의 8개 시정(市町)이 한국의 시군(市郡)과 자매도시를 맺고 있으며, 한국과 자매결연을 맺은 시정촌(市町村) 수는 일본 내 최고를 자랑한다. 나아가 이 가운데 6곳이 강원도내의 시군과 자매도시를 체결하고 있어 두 지역은 깊은 인연을 맺고 있다.



2017년 4월, 5개 교류지역(일본 돛토리현, 한국 강원도, 중국 지린성, 러시아 연해주, 몽골 투브드)이 평창 동계올림픽 응원에 합의했다.

돛토리현의 일한 교류를 지탱하는 국제 노선

돛토리현은 강원도와 교류를 지속하는 가운데, 국제노선 정비에도 힘써 왔다.

2001년, 요나고 기타로(米子鬼太郎) 공항과 인천국제공항을 잇는 국제선 정기편(아시아나 항공)이 취항했고, 지난 10월 에어서울로 이관되었다. 올 4월에는 이용자 수 50만 명 돌파와 동시에, 이 노선을 응원하는 ‘에어서울 산인(山陰) 팬클럽’ 등록 회원 수가 6,000명을 돌파했다.

또, 2009년에는 사카이(境港) 항과 한국 동해항,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국제정기화물여객선(DBS 크루즈웨이)이 취항해, 올 4월에 이용자 수 20만 명을 돌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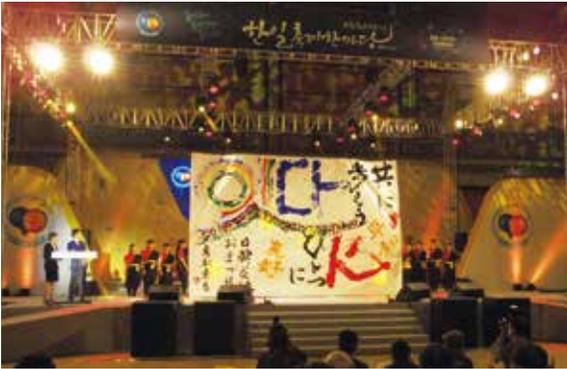
2017년 9월에는 돛토리 사구 코난 공항과 전남 무안국제공항을 잇는 국제선 전세기(코리아 익스프레스 에어)가 운항을 시작했다.

이들 국제노선은 실로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강원도를 비롯해, 한국과의 교류를 뒷받침하는 돌도 없는 자산이 되고 있다.

돛토리현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을 응원!

돛토리현은 일찌감치 강원도의 동계올림픽 유치에 지지해왔다. 강원도의 유치 활동이 값진 결실을 맺어, 내년 2월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하게 된 것은 돛토리 현민에게도 큰 기쁨이다. 따라서 돛토리현에서는 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까지 올림픽 테스트 이벤트와 연계하여 강원도에서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돗토리현 청소년이 올림픽 응원 메시지를 선보였다.



이낙연 국무총리, 한일축제한마당에서 두 지역의 홍보부스를 시찰

개최된 ‘2018평창 동계올림픽 G-2년 페스티벌(2016년 2월)’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G-1년 페스티벌(2017년 2월)’에 돗토리현 문화공연단이 참가하는 등 협력해왔다. 그리고 내년 2월, 본 행사에서도 올림픽을 보기 위해 전세계에서 몰려드는 관람객들에게 돗토리현의 문화공연을 선보이며, 행사 분위기를 고조시키고자 한다.

또, 지난 9월, 서울에서 열린 ‘한일축제한마당’에 돗토리현 청소년들이 서예 퍼포먼스를 통해, 앞으로 일한 양국에서 개최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 2020년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응원하는 메시지를 선보였다. 아울러 강원도와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설치해, 두 지역의 매력과 평창 동계올림픽의 개최를 널리 홍보했다.

그리고, 올 10월에는 강원도와 협력해 요나고 기타로 공항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100일 기념 세리머니’를 개최했다. 이를 계기로 내년 3월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PR 패널전을 개최한다. 돗토리현은 이러한 활동을 통해 지속

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널리 홍보할 생각이다.

돗토리현과 강원도, 앞으로의 교류

이처럼 두 지역은 폭넓은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거듭하며, 강한 연대를 구축해 왔다. 앞으로도 두 지역이 일한 양국의 상호 이해, 상호 발전의 촉진 및 교류 인구의 확대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간 교류 및 우호 관계를 계속 강화해 가고자 한다.

또, 드디어 내년 2월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강원도와 협력해 가고자 한다.

(집필: 돗토리현, 협력: CLAIR, Seoul)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D-100일 기념 세리머니’를 개최해,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기원



2017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도 돗토리현 문화공연단이 관람객과 함께한다.